

B-1. 맹출된 지치를 이용한 자가 치아 이식의 임상 증례

강민구, 이지호, 송선희, 박진우, 이재묵, 서조영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 교실

자가 치아 이식술이란 본인의 치아를 동일 구강내의 다른 부위로 이식하는 술식으로, 넓은 의미로 외과적 정직(surgical uprighting)이나 외과적 정출(surgical extrusion), 의도적 재식술(intentional replantation) 등도 본래의 이식과 치유 기전이 거의 같은 경과를 나타내기에 자가 치아 이식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가 치아 이식술은 수복이 불가능한 광범위한 우식, 치아파절, 심한 치주염으로 인해 보존이 불가능한 대구치를 발치하고 난 다음, 기능하고 있지 않은 건전한 제 3대구치를 발치와에 이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위 매복 소구치나 견치 등도 donor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자가 치아 이식은 임플란트와 비교시 치근막에 의한 저작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인공 치아 대체물이 필요하지 않아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환자의 연령과 수용부의 상태 등에 따라 장기적인 예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술전 치주 영역뿐만 아니라 근관·보철적 평가도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자가 치아 이식술의 예지성은 적응증의 선택과 술자의 기술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적절한 경우에 올바른 기술로 시행된다면 그 예후는 결코 나쁘지 않다.

이에 치주, 보존적 이유로 상실된 구치에 제 3대구치를 이식하여 임상적으로 양호한 예후를 획득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